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

4월 6일 화요일	보 도 자 료

실국	농축산식품국	과장	손 명 도	팀장	김 재 인	☎	286-6260

전남도, 배수개선사업 3년 연속 '전국 최다' 선정 쾌거 !

- 국비 1,826억원 확보, 농경지 재해피해 최소화에 중점 -

전라남도는 5일 "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신규착수 9개 지구와 기본조사 10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"고 밝혔다.

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,

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2021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 및 기본조사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.

신규착수 지구는 전국 51개 지구 가운데 전남 9개 지구이며, 기본조사 지구는 전국 54개 지구 가운데 전남은 10개 지구이다.

총 19개 지구에 대한 확보사업비도 신규착수 771억 원, 기본조사 1,055억 원 등 총 1,826억 원에 이른다.

배수개선사업은 우기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, 배수문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고,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이다.

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9개 지구는 ▲나주 내기, ▲담양 담양읍, ▲고흥 신양, ▲보성 안심, ▲해남 황산, ▲영암 용당, ▲완도 충도, ▲진도 군내, ▲신안 산두지구이다.

대상지역은 금년에 현황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설계를 완료하고, ’22년에 착공하여 ’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.

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10개 지구는 ▲나주 월송, ▲광양 송금, ▲담양 응용, ▲고흥 강산, ▲화순 덕곡, ▲장흥 가학, ▲해남 오호, ▲함평 학교, ▲무안 양곡, ▲장성 신흥지구이다.

이곳 역시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전라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“낙후된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히면서 “농업기반시설 개선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전라남도는 2020년까지 국비 1조 1,651억 원을 투입하여 41,385ha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금년에도 순천시 등 19개 시·군 29개 지구(4,091ha)에 국비 6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고 저지대를 매립하는 등 농경지 침수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